



1.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표현방법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사용한 예이다.

<p>1)</p>	<p>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</p> <p>반장에게 연락이 왔어 우리반 단체 채팅방에 모듬활동 사진 바로 올리라고.</p> <p>이 정도는 1)()지! 찍어 둔 사진 찾아 휘리릭, 올려놓았어</p> <p>-이게 뭐 사진? 와글와글 와글와글 채팅 방이 난리 났어</p> <p>아이고, 모듬 활동 사진이 아니라 선영이 생일 때 몰래 찍은 사진 보냈어.</p>	<p>2)</p> 
<p>1)()에 들어갈 속담:</p>	<p>2)-①원래 속담: 2)-②바뀐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?</p>	
<p>3)</p>		<p>- 위의 1)~3)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?</p>
<p>3)-①원래 명언: 3)-②바뀐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?</p>		

2. [보기]에 제시된 표현을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자.

[보기]	2-2 '노찬성과 예반'과 관련한 내용
가. 옆친 데 댔친 격	
나. 하룻강아지 똥 무서운 줄 모른다.	
다.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기 마련이다.	
라. 어떤 만남은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긴다.	
마.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.	

2-1. 다음 [보기]에 제시된 표현의 뜻을 이야기 나눠보자.

2-2. 소설 '노찬성과 예반'의 내용 중 위 보기의 표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?

3. 소설 '노찬성과 예반'의 내용 중 자신에게 인상깊은 장면이나 마음에 남은 장면을 속담, 관용어, 명언 등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해보자. (교과서에 실린 부록 참고해서 작성)
